소절에 관한 어휘적 연구*

홍성룡
(남서울대학교)

Hong, Sung-Ryong. 2003. A Constraint-based Analysis of Small Clause Constructio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4), 229-246. Stowell (1981) treats many of the complements as projections of the major categories N, V, A, and P, crucially modifying the X-bar Theory he assumes in order to allow NP's, VP's, AP's, and PP's to take subjects.

However, there are compelling, independent reasons for rejecting the treatment of verbs of considering in terms of Stowell Structures. First, there is the matter of constituency. In addition, there is some doubt about the status of the transformation of 'Subject-to-Object Raising'(SOR), which began in the early 197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plementations, so-called small clauses, in English based on the lexically constrained approach within the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HPSG) framework by Pollard & Sag(1994). From the constituency of pseudo-cleft and it-cleft, small clauses are to be analyzed as the constructions which two complements are subcategorized by the lexical property of the main verb. Accordingly, semantic selection must work hand in hand with syntactic subcategorization to get the appropriate analysis on the Small Clause Constructions.

주제어(Key words): small clause, HPSG, lexical approach, Stowell Structure, complement, subcategorization

1. 머리말

GB의 원리-매개 이론과 어휘적 분석에 기초한 다른 생성 통사이론의 통사 구조 분석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그 중에 특히 대조되는 면이 절(clause)에 대한 구조분석이다.

원리-매개 이론의 통사부 내에서 INFL, COMP 등 기능범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Pollock(1989)은 INFL을 AGR와 TENSE라는 범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적어도 HPSG(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핵어중심구구조 이론) 이론에서는 S의 X-bar 이론상 문제점을 다르게 해

* 이 논문은 2002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결하고 있다. 즉, S는 V의 최대투사라는 입장을 취한다. 기능범주도 COMP를 제외하고는 상정하지 않고 COMP도 S를 보어로 취하는 핵이 아닌 일종의 부가어(marker)로 분석한다. 반면, 최근 어휘기능문법(Lexical Functional Grammar; LFG)이론에서는 CP와 IP의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HPSG나 LFG는 어휘주의적 이론(lexicalist theory)들이다. 어휘주의 가설이란 통사부의 원소는 단어라는 생각을 지칭한다. 그러나 원리-매개 이론에서는 예를 들어, INFL이라는 기능범주는 단어인 양태 조동사뿐 아니라, 어미인 인칭, 수를 포함한다.

원리-매개 이론의 절 구조 분석 중 동사구내 주어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은 논항 기능 범주와 실질/어휘 범주의 구분과 관련이 깊다. 이 가설은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I의 지정어 자리에 기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V의 지정어 자리에 생성되었다가 I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는 가정이다.

종속절의 성분 분석을 살펴보면 주절과 같이 CP(=S′)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보문자가 직접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 a.*That John has come home.
b. (I know) that John has come home.

그러나 의미적으로 Proposition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종속절로 분석될 수 있는 성분들 가운데 주절이 보이는 성격을 결여하는 여러 성분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원리-매개 이론과 HPSG, LFG 이론사이에 중요한 관건이 되어왔다.

(2) a. I believe John to be sincere.
b. John seems to be intelligent.
c. I consider John dishonest.

전통적으로 주어-목적어 상승(Subject-Object Raising; SOR) 및 주어-주어 상승(Subject-Subject Raising) 구문으로 알려진 (2a)와 (2b)는 각각 심층구조에서 절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사 원리에 의하면 believe나 seem과 같은 동사가 의미적으로 Proposition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통사적으로 이들의 보어가 절이라는 사실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표면에서 한 성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심층 구조에서는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3) I believe [$_{IP}$ John$_i$ to be [AP t_i sincere]

여기서 종속절이 CP가 아닌 IP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즉 절이라는 성분이 반드시 CP투사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내부주어 가설에 기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John_i$ seems [$_{IP}$ t_i to be [$_{AP}$ t_i intelligent]

(4)의 분석도 심층구조에서 seem의 보어는 IP로 표현되는 절이다. 이 절의 주어는 seem의 표면주어 자리까지 이동한다.

HPSG나 LFG 이론에서는 의미적 명제가 통사부에서 항상 절의 구조로 투사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 이론에서는 투사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5) I consider [$_{AP(=SC)}$ John dishonest]

여기에서 AP로 지칭된 성분이 바로 소절(small clause)라고 불리는 성분이다. 이 성분이 절로 분석되는 이유는 소절 성분이 명제를 나타내고 consider라는 동사가 명제를 의미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Stowell은 *prove, expect, consider* 등의 동사가 그 다음에 오는 구 범주(phrase category)를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위범주화의 일반적인 제약이 이러한 동사의 보어 절 분석에서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그 대안으로 Stowell Structure[1]라고 불리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5)에서와 같이 소절이 표면에 직접 나타나는 것이 내부주어 가설과 최소주의에서 상정하는 어휘 범주의 영역과 기능 범주의 접근방식에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구문에 대해 기능 범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Stowell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HPSG 이론 틀 안에서 어휘적 접근 방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투사원리가 항상 적용 되야 하는 기능범주의 입장과 어휘주의적 입장인 HPSG와 LFG 이론 중 연구 주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여 소절구문에 대한 그 기본 입장을 대비하고자 한다.

이론들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towell 구조에서 주장된 CP/IP, 기능범주에 의한 분석의 방법을 HPSG의 통사적 어휘적 속성의

1) Stowell(1981)은 X-bar 이론을 수정하여 문제의 보어들을 주 범주 N, V, A, P의 투사로서 다루고 있다. 즉 (6)에서처럼 consider는 S가 아닌 하나의 AP의 범주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정보에 의해 의미제약은 범주적 선택 제약에서 특별한 어휘적 항목이 나타내는 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통사적 하위범주화와 상호 작용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즉 문제 동사의 보어의 범주적 속성에 통사적 정보 규칙이 적용 되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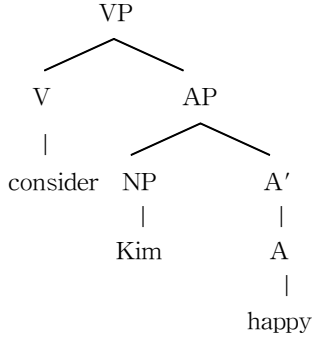
이외에 Stowell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소절 보어의 구성성분에 관한 문제이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SOR의 구성성분에 관한 여러 논의 중 Postal(1974)에서 주장된 구조를 근거로 Stowell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HPSG 이론의 틀 안에서 분열문의 예를 들어 어휘적 분석에 의해 그런 현상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피동태의 구문을 HPSG의 어휘적 접근 방법으로 피동태 분석으로 Stowell 분석과 차이점을 밝히고 HPSG 틀 안에서 어휘 규칙으로 분석하여 GB 이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사원리나 기능범주의 도입없이 어휘적 접근 방법을 통해 관련 구문들의 올바른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투사원리와 어휘주의 가설 비교

GB의 대안적인 분석은 Stowell(1981)에 의해 발전되었다. Stowell은 위의 많은 보어들을 N, V, A, P의 주요 범주의 투사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NP, VP, AP, PP가 주어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그가 전제로 하고 있는 X-Bar 이론을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6)



Stowell의 접근 방법은 범주적 정보가 주 동사에 국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하위범주화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러나 그의 분석이 as-phrase 선택제약을 다룰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 as 절과 consider의 경우 as 전치사구가 연결되면 비문법적이고 다른 전치사구가 오면 문법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as가 전치사로 다루어

진다면, 모든 동사가 as 구를 허용하기 위해 PP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예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휘적 핵어로 부터 AP로 투사되는 통사자질을 도입하는 것이다(HPSG의 핵자질 원리와 유사).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되어져야 하는 전치사의 속성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국부적으로 주 동사에 이용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Stowell의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B 이론에서 절 구조의 분석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Projection Principle에 입각해 의미적으로 명제(Proposition)를 나타내는 성분들은 통사적으로 반드시 절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점에서 원리-매개 이론은 통사부와 의미부 간의 간극(syntax-semantics mismatch)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로 표면 구조를 중시하는 다른 이론과는 달리 구 구조 분석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보이는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ies)가 상정된다는 것이다. 즉 INFL, COMP 등의 기능 범주의 상정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휘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이론 중 HPSG 이론에서는 S는 V의 최대투사라는 입장을 취한다. COMP도 S를 보어로 취하는 핵이 아닌 일종의 부가어(marker)로 분석한다. 반면에 최근 LFG 이론에서는 CP와 IP의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Bresnan 1988). 그러나 LFG에서는 INFL과 V의 두 위치가 상이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INFL이 접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수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LFG는 기능범주를 인정하면서도 어휘주의 가설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seem과 believe는 Chomsky 문법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된다. 전자는 흔적(trace)을 남기는 명사구 이동변형으로 설명되고 후자는 소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데 이때 예를 들어 (7b)의 John이 상위절에 속하여 목적어로서의 격을 받는 것인지 하위절에 속하면서 예외적격할당(Exceptional Case-marking)[2]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7) a. John seems to like linguistics.
b. Mary believes John to like linguistics.

LFG에서는 이들을 함께 분류하여 기능통제로 설명한다. 즉 부정사구는 범주 구조상에서는 동사구이고 그들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가 된다는 정보는 어휘의 기능 도식과 기능 구조에 표상된다. 이들이 위의 동사와 다른

2) 초기 GB이론에서 John의 격(대격)이 상위문 동사에 의해 "예외적 격할당"에 의해 인허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최근 이론에서는 John이 상위문 동사구 위에 투사된 기능 범주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후 격점검을 한다고 분석한다.

점은 (7)처럼 전체 문장의 주어가 논항 구조외부에 표시된다는 것이다. 이는 LFG에서 비의미역 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7a)의 의미가 'John likes linguistics'라는 명제 전체가 지시하는 내용에 대한 서술이지 John이라는 개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seem은 논항을 하나 취한다는 초기 변형생성 문법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believe도 이와 같이 비의미역 주어를 가지며 동시에 위의 persuade와 같이 부정사구의 주어는 상위절의 목적어가 된다.

(8) a. seem V (↑PRED) = 'seem <(↑XCOMP)>(↑SUBJ)'
(↑XCOMP SUBJ) = (↑SUBJ)
b. believe V (↑PRED) = 'believe <(↑XCOMP)(↑OBJ)>(↑SUBJ)'
(↑XCOMP SUBJ) = (↑OBJ)

그러면 이들 두 동사와 try, persuade 등, Chomsky의 설명에 따르면 통제, 명사구 이동, 예외적 격 표지 세 가지 유형의 동사를 하나의 구문으로 묶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들의 공통점은 국지적 종속성(local dependency)으로 이들은 항상 통제자가 피통제자의 바로 상위 문에 존재하기를 요구하고, 그 점에서 장거리 종속성(long-distance dependency)과 대비된다.

즉 LFG는 종속 관계가 국지적인가 장거리인가를 종속구문의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이런 통찰은 의미와 통사를 분리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논항 구조와 범주 구조가 동일해야 한다는 투영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3. 범주적 제약(Category Selection)과 소절

3.1 Stowell Clause

GB에서 다음 (9)의 예들의 모든 동사가 단 하나의 보어만을 하위범주한다고 분석된다.

(9) a. Kim said [that Sandy left].
b. Dana believed [Dominique to have made a mistake].
c. Tracy proved [the theorem false]
d. Gerry expects [those children off the ship].
e. Bo considered [Lou a friend].

이러한 보어들의 통사적 분석은 GB의 투사원리에 의해 하나의 유일한 구성성분으로 간주한다. 즉 동사 believe는 정확하게 두 개의 통사적 구성요소를 가지는데 즉 하나의 NP(주어)와 다른 절 하나를 취한다.

그러나 (9)에서 표기된 구성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할 때 (9c)-(9e)의 보어들의 범주 상태에 대한 논란이 예기된다. Stowell(1983)에 의해 주목된 바와 같이 이러한 보어들이 소절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면, 논리 형태에서 동사는 전체 절에 의미역을 할당하기 때문에 전체 절 이외의 어떠한 다른 범주적 자질을 명기할수 없게 된다. Stowell은 하위범주화의 제약 이론으로 CP를 제안한다. 그러나 동사는 소절 술어의 범주적 상태와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10) a.* I consider [John off my ship].
b.* I proved [the weapon in his possession].
c.* I expect [that man stupid].

술어의 범주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선정은 부정사구 보어 구문에서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예들 들어 위의 예문의 [ ]앞에 to를 삽입하면 (10)의 모든 예들은 Stowell의 예견과 달리 모두 문법적이 된다(예. I consider to [John off my ship]).

3.2 Kitagawa 의미 제약

Kitagawa(1985)는 위의 문제의 보어 구문은 범주 제약의 문제가 아니고 순수한 의미제약을 수반한 현상으로 주장하면서 Stowell이 한 것처럼 소절 분석을 유지시키고자 하였다.

(11) a.* The doctor considers that patient *dead* tomorrow.
b. Unfortunately, our pilot considers that island *off* the route.

(12) a.* I expect that island *off* the route.
b. I expect that man *dead* by tomorrow.

이러한 예들로부터 Kitagawa는 'consider'는 '상태(state of affairs)'를 나타내는 보어를 제약하는 것이지 '상황의 변화(change of state)'를 나타내는 보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expect는 이와 반대의 제약을 설정한다. 따라서 그의 분석에서 어떠한 범주적 제약도 consider와 expect의 보어와 관련하여 수반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하위범주화 국

부성을 문제의 보어들에 대한 소절 분석과 일치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동사의 보어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의미제약 그 이상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들에 있어서 to를 가지게 되면 왜 문법적이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13) I expect that island to be off the route.

그리고 또한 expect가 그것의 보어의 범주적 속성에 하위범주화를 통해 제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왜 다음의 (14a)와 (14b)의 차이가 있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14) a. I expect that island to be a good vacation spot.
b.* I expect that island a good vacation spot.

그러나 consider의 경우 이러한 모든 형태의 문장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15) a. I consider that island to be off the route.
b. I consider that island to be a good vacation spot.
c. I consider that island a good vacation spot.

이러한 예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Stowell과 대조적으로 첫째, expect와 consider는 AP, PP, 부정사구를 허용한다. 둘째, expect와 consider는 AP 또는 PP 보어를 하위범주화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의 위 동사들의 의미적 속성은 보어들의 의미적 본질과 상호 작용한다는 것이다.

3.3 의미적 제약과 통사적 하위범주화

지금까지 3.1-3.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사적인 제약이 단순히 본질상 의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로 인해 모든 제약이 의미적 접근 방법에 의해 설명 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HPSG에서 의미적 제약은 통사적 하위범주화와 함께 작용해야 한다. 특히 범주적 제약에 있어서 특별한 어휘 항목이 나타내는 복잡한 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러한 관점으로 소절의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Stowell 이 제기했던 절 분석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다음 (16)-(20)에서 'verbs of becoming'[3]이라고 지칭되는 의미적으로 관련된 종류의 동사를 통해 그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게 된다. 즉 (16)에서 모든 동사의 의미 같지만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적 선택제약 만으로는 설명이 불가함을 알 수 있다.

(16) a. Kim grew political.
b. Kim grew a success.
c.*Kim grew sent more and more leaflets.
d.*Kim grew doing all the work.
e. Kim grew to like anchovies.

(17) a. Kim got political.
b.*Kim got a success.

(18) a. Kim turned out political.
b. Kim turned out a success.
c.*Kim turned out sent more and more leaflets.

(19) a. Kim ended up political.
b. Kim ended up a success.
c.*Kim ended up sent more and more leaflets.

(20) a.Kim waxed political.
b.*Kim waxed a success.
c.*Kim waxed sent more and more leaflets.

이러한 많은 예들에서 비문과 정문이 되는 차이를 어떠한 의미적 설명으로 어렵기 때문에 (15)-(20)의 예들의 경우 오히려 통사적 하위범주화가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소절 구문의 보어들에 대한 종전의 CP/IP 분석에 그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부정사, that 절, 동명사 보어 절의 선택적 제약의 경우 CP/IP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NP, PP,

3) Sag and Pollard(1987)에서 (16)-(20)에서처럼 의미적으로 관련된 부류의 동사를 'verbs of becoming'으로 지칭한다. 이런 예들의 동사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그 차이점을 의미 선택제약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P, 수동문 보어의 경우 반드시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CP/IP 분석이 적용되지 않는다.

4. Constituency에 의한 소절분석

4.1 Stowell 구조의 어휘적 분석

Stowell Structure에 의해 동사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분명한 매우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구성성분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consider 류 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NP-XP 순서가 Stowell 구조의 구성성분이라면, 다음 (21)의 예에서 의사 분열문(pseudo-cleft)과 허사 분열문(it-cleft) 구문이 가능해야 한다.

(21) a.*What we considered was [Leslie in complete control of the situation]
b.*It was [Leslie in complete control of the situation] that we considered.

그러나 이러한 예문들은 그 반대로 모두 체계적으로 비문법적이다.

(22) a. What we feared most was [Leslie in complete control of the situation].
b. It was [Leslie in complete control of the situation] that we feared most.

GB에서 Case filter와 같은 원리에 의해 (21a)와 (21b)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21)과 (22)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은 HPSG 이론에서처럼 consider의 동사는 두 개의 보어(주어 이외의)를 취한다는 것이다. 즉 목적어 NP와 술어 보어이다. 따라서 (21)에서 예들의 차이를 분열문 절은 두 개의 공백(gap)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consider 류의 보어를 단 하나의 구성성분으로 설명하는 소절 분석과 Stowell 형태의 분석에 반대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4.2 주어-목적어 상승(Subject-to-Object Raising; SOR) 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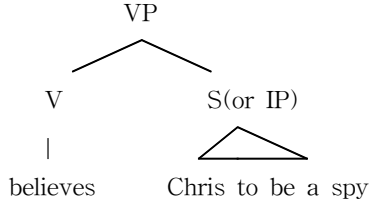
보어들의 구성성분의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1970년대 초부터 시

작된 주어-목적어 상승의 변형의 상태에 관한 논쟁이다. 본 연구에서 SOR 구문을 다시 논의하는 이유는 이러한 예문들의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Chomsky 및 Stowell의 투사원리에 의한 소절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3) a. Pat believes Chris (to be) a spy.
b. Kim expects Sandy (to be) on time.
c. Terry proved Dana (to be) wrong about the regulations.
d. Lee prevented Dominique from being a scapegoat.

이러한 예들에 대해 Chomsky(1973)[4]에 의해 제안된 구조는 GB내에서 가정되고 있는 소절 구조와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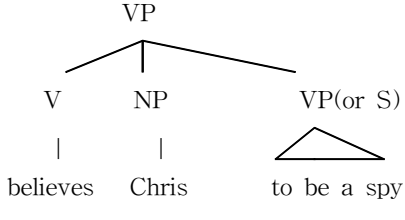
(24)



이러한 구조에서 NP Chris는 변형적 도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내포절의 주어로 남아있다.

그러나 Postal(1974)의 의해 주장된 구조에서 동일한 예가 SOR 변형의 적용을 통해 (25)의 구조에 할당된다. 이러한 이유는 목적어 위치로의 주어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5)



그러면 이제 Stowell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26)의 복합 명사구 이동(Complex NP Shift)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4) Chomsky(1973)는 (24)에서 believe의 sister는 S로서 하나의 Proposition을 이루고 있으며 Chris는 내포절의 주어로 간주하고 있다.

(26) a. Kim bought a book from Rene.
b. Kim bought from Rene – a book which taught him organic knitting.

Postal(1974)은 다음 (27)의 예들을 근거로 (28)의 일반화 규칙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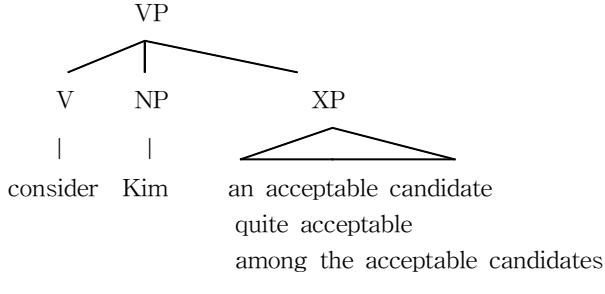
(27) a.* Are happy– all of the men who recovered from mononucleosis?
b.* I regret the fact that were destroyed – so many of our priceless relics.

(28) Complex NP Shift does not operate on NP's that are subjects at the point of application.

(28)의 규칙은 주어자리의 요소에 대한 이동제약을 부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화는 목적어 상태에 있는 명사구는 복합 명사구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볼 때 동사의 다음에 오는 명사구는 자유롭게 복합명사구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주어는 이동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은 위의 예들의 올바른 구조는 다음 (29)에서 제시된 SOR 구조이지 Stowell에 의해 제시된 대안이나 소절 분석이 아님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29)



이러한 분석에 대해 GB에서 복합명사구 이동은 고유 지배[5]되어져야 하

5) Complex NP Shift leaves a trace that must be properly governed.

는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그 역시 동명사구의 다음 예를 보면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0) a. It was [him doing that] that I resented _.
b. What I resented _ was [him doing that].

(30)의 예에서 나타난 구성성분은 동명사 분열구문에 관한 것이다. 동명사의 주어는 상승을 하지 못하여야 하지만 (30)의 예들은 모두 문법적이다. 따라서 GB의 그러한 대안 역시 소절의 주어와 동명사 주어의 구분을 예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Chomsky와 Stowell, 그리고 전통의 GB이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대되는 이유는 (31)에서 명시된 GB의 투사원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31) If α subcategorizes the position β, α then θ-marks β.

즉 (31)은 다음 (32)의 예문을 위한 SOR 구조의 분석과 모순되어진다. 왜냐하면 (32)에서 허사 대명사는 의미역을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32) a. We believe it to be obvious that Sandy will win.
b. We believed there to be no alternative.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의 분석을 위해 SOR 구조는 필요함을 알았다. 따라서 Postal[6] and Pullum(1988)이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구문들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 (31)의 투사원리의 일부가 포기 되야 하는 것을 나타난다.

---

6) Postal(1974)의 SOR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증거 자료로서 부사들의 해석과 위치에 대해 논하고 있다. (ia)에서 부사는 내포절의 동사(outweigh)만을 수식할 수 있지만, (ib)에서 부사는 주동사(prove)를 수식한다.

(i) a. I can prove that Bob easily outweighed Martha's goat.
b. I can prove Bob easily to have outweighed Martha's goat.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 (ii)와 같다.

(ii) A 'sentential' adverb cannot be inserted in a complement clause.

이러한 원리는 즉 prove + NP + VP[INF]의 SOR 분석 방법과 함께 (i)의 차이점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한다.

5. 소절 및 어휘분석에 의한 피동(passive) 구문

5.1 소절로서의 피동구문

believe 다음에 바로 오는 NP는 소절이거나 Stowell 구조의 부분이라는 표준 GB의 전제하에, 피동태는 다음 (33)의 예문을 허용하기 위해 이동변형을 수반한다.

(33) a. Sandy was believed to be a spy(by almost everyone).
b. Terry was expected to win the prize(by almost everyone).
c. Bo was considered a great athlete(by all her coaches).
d. Dana was regarded as among the leading candidates (by everyone).
e. Gerry was counted among the leading contenders(by the entire committee).

이러한 예들은 다음의 (34)에서처럼 동사 다음의 NP가 피동태로 이동될 수 없는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

(34) a.*The doctor was resented examining Kim(by our whole family).
b. *Dana was resented having been chosen (by almost everyone).

피동태에서 이러한 (33)과 (34)의 차이를 어떠한 설명이 가능한가? 먼저 GB에서 그 답은 피동태(NP 이동의 예)는 격을 할당받지 못하는 NP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3)에서 피동태 동사형태는 'absorbed case'를 갖게 되어 그 다음 NP에게 격을 할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모든 NP는 Case Filter에 의해 격을 할당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34)에서 동사 뒤의 NP는 동명사의 INFL에 의해 격이 할당되어 진다. 그래서 GB의 피동규칙에 의해 앞으로 이동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5.2 HPSG의 어휘적 피동구문

1994년 Pollard & Sag의 이론과 1999년 Sag & Wasow의 Syntactic Theory[7]에서 피동구문을 분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7) Ivan A. Sag and Thomas Wasow(1999)의 Syntactic Theory에서 피동태 어휘

소절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1994년 분석 방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GB의 설명과 대조적으로 피동태에 대한 HPSG 설명은 동사 바로 뒤에 오는 NP는 그것이 동사의 주 목적어인 경우에만 피동태가 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피동문에 대한 분석은 타동사 형태의 SUBCAT 리스트를 배치하는 어휘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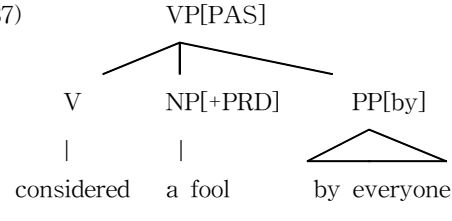
SOR 구조안에서 (35)에서처럼 consider와 다른 동사들의 능동구문의 SUBCAT 리스트는 (36)의 SUBCAT 리스트로 전사(mapped)된다.

(35) a. SUBCAT <NP, NP, XP[+PRD]> (consider, rate)
b. SUBCAT <NP, NP, PP[as]> (regard, rate, count)
c. SUBCAT <NP, NP, PP[+PRD]> (count)
d. SUBCAT <NP, NP, VP[INF]> (believe, expect)

(36) a. SUBCAT <NP, XP[+PRD], PP[by]> (considered, rated)
b. SUBCAT <NP, PP[as], PP[by]> (regarded, rated, counted)
c. SUBCAT <NP, PP[+PRD], PP[by]> (counted)
d. SUBCAT <NP, VP[INF], PP[by]> (believed, expected)

피동태 어휘규칙[8]에 의해 이러한 어휘적 목록이 (37)에서와 같이 피동태 형태의 동사의 논항 구조를 가진다.

(37)



규칙은 transitive-lexeme 유형의 동사를 입력으로 하고 피동태 형태의 파생어(word 유형)를 출력으로 생산하는 파생어 규칙이다. 이렇게 파생어를 생산함과 동시에 입력 동사의 논항 구조에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피동태 동사의 논항 구조를 얻는다. 즉 입력의 ARG-STR의 리스트 값 중 최초 요소 NP가 없어지고 그 대신 그 NP 다음의 요소가 첫째 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선택적 요소로 PP가 올 수 있는데 이 전치사구의 목적어가 입력의 주어와 공지표 된다.

8) It licenses phrases with a lexical head daughter and zero or more complement daughters, which have satisfied all their subcategorization requirements except the least oblique one (the subject)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GB의 투사원리를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HPSG 이론으로 통사적, 의미적 구조의 본질을 가진 보다 일반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HPSG에서는 하위범주화 원리, 핵자질원리, 의미역 원리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구의 어휘적 핵어의 속성으로부터 구의 통사적, 의미적 속성으로 투사되는 어휘적 기호로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방법은 GB의 투사원리에 의한 분석이 아닌 어휘적 제약으로서 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6. 결 론

GB이론과 다른 생성 통사 이론(HPSG, LFG)의 통사 구조 분석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특히 대조되어 왔던 분야가 절(clause)에 관한 구조분석이다.

그 중에서도 Stowell은 소절(Small Clause)을 일반 보어 절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 성분을 Stowell이 절로 분석하는 이유는 소절 성분이 명제를 나타내고 consider라는 동사가 명제를 '의미적으로 선택(s-select)하기 때문이다. Stowell은 prove, expect, consider 등의 동사가 그 다음에 오는 구 범주(phrase category)를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위범주화의 일반적인 제약이 이러한 동사의 보어 절 분석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목하여 그 대안으로 Stowell Structure라고 불리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Chomsky(1973)와 Stowell(1981)이 주장하는 CP/IP, 기능범주에 의한 분석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적 제약은 특별한 어휘적 항목이 나타내는 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범주적 선택제약에서 통사적 하위범주화와 상호 작용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즉 문제 동사의 보어의 범주적 속성에 하위범주화에 의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SOR에 관한 Postal(1974)에서 주장된 구조를 근거로 Stowell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consider는 하나의 유일한 구성성분만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Stowell 형태의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였다.

반면에 이러한 구성성분에 대해 HPSG 이론의 틀 안에서 어휘적 분석에 의해 올바른 분석을 예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consider 동사의 경우 하위범주화에 의거하여 주어 이외의 두 개의 보어를 취하는데 하나는 주 목적어 NP와 다른 하나는 술어 보어이다. 이런 어휘적 정보에 기반을 두어 Stowell 구조에서 올바른 분석을 하지 못하였던 분열문의 구문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homsky, Stowell의 분석 방법은 CP/IP 분석, 기능범주, 투사원리 적용, 하나의 보어 구성성분 선택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 접근 방법의 문제점들을 여러 예들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 대안으로 보어들의 구성성분과 능동태-피동태 구문의 실례를 들어 어휘 제약적 접근 이론인 HPSG의 이론 틀안에서 어휘적 분석이 GB의 투사원리를 포기함에도 보다 일반적인 분석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박병수 외. (1999). 문법이론. *신영어학 총서 11*. 한국문화사.

Bresnan, Joan. (1978). A Realistic Transformational Grammar. In M.Halle, J. Bresnan, and G. A. Miller (Eds.), *Linguistic Theory and Psychological Re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Chomsky, Noam. (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In Stephen Anderson and Paul Kiparsky (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Chomsky, Noam.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enneth Hale and Samuel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1-52. Cambridge, MA: MIT Press.

Flickinger, Daniel P. (1987). *Lexical Rules in the Hierarchical Lexicon*. Standard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Gazdar, Gerald. (1982). Phrase Structure Grammar. In P. Jacobson and Geffrey K. Pullum (Eds.), *The Nature of Syntactic Representation*. Dordrecht: Reidel.

Gazdar, Gerald, Ewan, Klein, Geoffrey K. Pullum & Ivan A. Sag.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Kitagawa, Yoshihiro. (1985). *Small but Clausal*. In Eilfort et al., (Eds.) 210-220.

Pollard, Carl & Ivan A.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1: Fundamentals. Approach," CSLI Lecture Notes Series No. 13. Stanford University: CSLI Publications.

Pollard, Carl and Ivan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ollock, Jean-Yves.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Postal, Paul. (1974). *On Raising*. Cambridge, MA: MIT Press.

Postal, Paul and Geoffrey K. Pullum. (1988). Expletive Noun Phrase in Subcategorized Positions. *Linguistic Inquiry 19*, 635-670.

Radford, Andrew. (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A Minimal Approach*.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g, Ivan A. (1982). Coordination, Extraction, and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Linguistic Inquiry 13*, 329-35

Sag, Ivan A. & Wasow T. (1999).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Stowell, Timothy.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홍성룡
330-800,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전화: (041) 580 2313
E-mail: srh@nsu.ac.kr

Received: 29 September, 2003
Revised: 29 October, 2003
Accepted: 19 November, 2003